

곡성군, '찾아오는 산부인과' 서비스 연중 운영

지역 여성 의료접근성 향상 기대
초음파·골밀도·산전 진료 등 제공
임산부 비롯 어르신 등 무료진료
2주에 한번 전화 예약 통해 진행

전남도와 목포시의료원의 협력으로 곡성군에서 '찾아오는 산부인과'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찾아오는 서비스는 산부인과가 없는 곡성군보건의료원에서 제공되며 지역 여성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초음파, 골밀도, 산전 진료 등 폭넓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25일 곡성군에 따르면 찾아오는 산부인과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2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진행된다.

대상은 곡성군 내 모든 여성 주민으로

임산부와 가임 여성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포함된다. 진료는 무료로 제공되며 전화로 예약한 후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면 된다.

기본 진찰, 초음파 검사, 비만도 검사가 이뤄지며, 임산부를 위한 산전 진료도 실시되는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산전 진료에는 혈액 검사, 요 검사, 기형아 검사 등이 포함된다. 어르신들을 위해 중앙표지자 검사와 골밀도 검사까지 제공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건강을 관리한다.

이를 통해 출산을 앞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필요한 진료를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부인과 진료 접근성이 낮았던 다문화 가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찾아오는 산부인



전남도와 목포시의료원이 협력해 산부인과가 없는 곡성군에서 '찾아오는 산부인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가 산부인과 진료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과'는 지역 내 여성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특히 의료 접근성이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곡성군은 앞으로도 지

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곡성=김대영 기자



산림교육 분야 향상 논의 국립장성숲체원 교원직무연수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국립장성숲체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대상 특수분야(산림교육) 직무연수 '미래를 심는 우리들(1~3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원연수는 교사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림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기획됐다.

주요 교육과정은 △전통놀이를 접목한 산림교육프로그램 △숲속 인문학 산책 △자연물을 활용한 생태미술로 교원이 교수법을 직접 체득하면서도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어 80여 명의 참가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국립장성숲체원은 우수한 품질의 자율 직무연수를 지속 운영하여 교원이 다양한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할 기회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정준근 국립장성숲체원장은 "이번 교원연수에 참여한 교원들께서 산림 분야의 지식을 얻어갈 뿐만 아니라, 숲체원을 통해 심신 안정 효과도 거두셨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학교 현장의 니즈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교원과 청소년들이 산림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병현 기자

'소소한 공생 어울림 장터' 담양군, 31일부터 9월1일까지

담양군과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가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영산강 문화공원 일대에서 '소소한 공생, 어울림 장터'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월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주민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내 공동체 등 26개 업체가 참여해 수공예품, 먹거리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쓴 덕담 캡슐 뽑기, 포토 부스 이벤트와 더불어 죽녹원 일대와 어우러진 포토존과 휴식 공간 등 볼거리, 먹거리, 문화행사 등이 다채롭게 행사장을 채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지역 내 공동체의 우수성을 알리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사회적경제가 더욱 더 활성화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꾸리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영광군, 양파 육묘 신청 29일까지 선착순 접수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29일까지 양파 육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양파 육묘신청은 4500판(182만주) 내에서 선착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농가별 50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육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파 육묘 품종으로는 농가 선호도가 높으며 수량성과 저장성이 우수한 조생종인 조생스타, 로얄패스트와 중만생종인 다카이, 골든벨, 키크롱, 하하, 초이스, 흥보석(적양파), 리지홍(적양파) 품종이다.

양파모는 10월 마지막주에 분양될 예정이며 1판(406공)당 6000원에 공급한다.

신청 농가는 소농 및 고령농가 위주로 하여 가능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양파 재배 농가의 육묘관리 및 경영상 어려움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자원연구팀(061-350-5096)으로 연락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함평 군민들이 민요를 학습하고 있다. 함평군은 지역역량강화 일환으로 '민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민요교실

매주 수요일 내교리 마을회관에서

함평군은 함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민요교실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우리 가락인 아월삼경, 남원산성, 진도아리랑 등 잊혀가는 민요를 계승하고자 마련됐으며 민요 전문가 김선자 강사의 지도 아래 내교리 마을회관에서 매주 수

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참여 주민들은 전래 민요의 역사와 함께 전문적인 호흡과 발성법을 배우고, 직접 민요를 부르는 시간을 가지며 민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요교실은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수업 종료 후 주민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일 공연도 추진될 예정이다.

김행구 함평읍 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장은 "민요교실을 통해 마을 주민들

이 함께 모여 우리 가락을 부르면서 활기찬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져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민요라는 형태의 인지 자극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적 교류 및 긍정적 경험을 도와 치매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소재지 중심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사업비 207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지역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함평=신재현 기자

담양군 향촌노인종합복지관, '향촌장수교실' 참여자 모집

재활운동프로그램 운영 등

담양군 향촌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동오)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향촌장수교실'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

25일 담양군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담양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외자, 신체·인

지기능 증진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연중 상시(주 5일) 운영된다.

프로그램 이용료는 무료이다. 지역 어르신들이 담양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담양군의 효도행정 '향촌복지'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최신 재활 장비를 활용한 재활운동과 인지 학습, 실버필라테스, 건강 체조, 보드게임, 족욕, 체험활동 등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

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담양군향촌노인종합복지관(061-380-1371)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동오 관장은 "최신 장비와 전문인력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향촌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백호 임제 어린이 글짓기 대회 나주시, 9월20일까지 접수

나주시 백호문학관은 전국 어린이 대상으로 제8회 백호 임제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글짓기 주제는 '이름'으로 이름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과 경험을 글로 쓰고 이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 제출하면 된다.

작품 규격은 4절지 도화지로 수채물감, 크레파스, 색종이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도 된다. 글은 시, 산문 등 형식에 제한이 없다.

참가는 나주시를 비롯해 전국 어린이(만 6세 이상 12세 이하) 누구나 가능하다.

오는 9월 20일까지 백호문학관(나주시 다시면 회진길 8)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심사를 거쳐 백호상(대상) 1명, 겸재상(최우수상) 2명, 소치상(우수상) 10명 등 40명을 선정해 10월 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10월 26일 오후 3시에 백호문학관에서 빛가람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함께 시상송 콘서트로 진행된다. 이날 우수작 수상자는 자신의 수상작을 직접 낭송하게 된다. 수상작들은 내년 6월까지 백호문학관 기획전시실에 특별 전시된다.

나주=김용희 기자